

## 돈피 의상 디자인 연구

서 승 현\*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현대의 복식은 산업화된 대량생산 체계로 규격화된 상업적 성격과 예술로써 인간성 회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형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 두가지 경향 중 의복을 통한 자기표현과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위한 인간의 욕구에 기인하여 디자인의 획일화에서 탈피한 예술성, 독창성, 고부가가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죽은 그 자체의 고급스러운 면과 퇴폐적이며 남성적인 면을 가진 반면, 섹시함과 원시성 및 미래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기법의 다양함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내구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며 색감, 질감 등에 있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가죽을 선택하여 심미성, 실용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복식조형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 손쉬운 염색으로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제작하기 용이한 돈피(豚皮)를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고문헌을 통해 여러 종류의 가죽 중, 본 연구의 주재료인 돈피(豚皮)의 성질과 염색 기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또한 실용 여성복 디자인을 위하여 최근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가죽의상의 디자인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가죽소재에 가죽염이라는 수공예적 염색기법과 전통 문양인 보상화문을 접목시켜 창의적인 소재를 제시하였다. 또한 양피나 우피에 비해 질이 낮아 저급으로 분류되는 돈피(豚皮)를 이용함으로써, 돈피(豚皮)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작품제작은 먼저 가죽에 흘치기염(Tie dye)을 이용하여 바탕염색을 한 후 그 위에 무령왕릉 출토 보상화문을 러브염(Rub dye)으로 염색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증대시키고 예술성과 조형성, 주목성을 높였다. 그리고 염색한 가죽을 이용하여 수트, 원피스, 코트등의 실용 여성복 6점을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작품의 형태는 프린세스 라인을 이용한 슬림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가죽의 강한 느낌은 배제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페미닌 스타일로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패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죽 중 돈피(豚皮)의 경우 타 천연 가죽에 비해 모공이 넓어 미관상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염색을 통하여 최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둘째, 가죽에 흘치기염을 사용함으로써 가죽의 자연스러운 이미지와 독특한 질감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색상과 문양 배치를 하늘, 나무, 땅의 자연에서 오는 이미지로 표현 함으로써 천연재료인 가죽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 전통 문양 중 무령왕릉 출토 보상화문을 사용 함으로써 백제문화의 화려함을 강조하여 가죽제품의 고급화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보상화문의 당초문양은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고유의 독특함을 표현해 주었고, 꽃문양이라는 점에서 여성스러움을 살려 주었다.

이로써 전통 자연문양을 이용한 서양복식을 제작하여 예술과 기능, 현대와 전통, 동양과 서양을 결합시킨 실용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었다.